

탄소배출권도 자산이다

Part 1 지금 탄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

Part 2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금융자산이 되는가?

Part 3 ETS별 장단기 가격 전망

Part 4 탄소는 이제 투자자산이다



The ESGverse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Contents



Part 1	지금 탄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: 무역장벽이 만들어내는 투자 기회	07
Part 2	탄소배출권은 어떻게 금융자산이 되는가?	19
Part 3	ETS별 장단기 가격 전망	31
Part 4	탄소는 이제 투자자산이다: 투자 전략 분석	45



The ESGverse 탄소배출권도 자산이다

1 지금 탄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: 무역장벽이 만들어내는 투자 기회

- 탄소는 규제(CBAM, CCA), 시장(ETS, VCM)을 통해 '거래 가능한 자산'으로 전환 가능
- EU CBAM, 미국 CCA·FPFA 등이 수출국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가
- 2024년 기준 ETS의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커버리지는 약 19%, 2005년 5% 대비 급속히 확대 중
- 탄소배출권 시장은 2050년까지 약 450억~2,5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 전망 (MSCI 예측)
- ETS 확대와 유동성 강화를 통해 ETF·선물 등 금융상품 기반 투자기회 확보 가능

2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금융자산이 되는가?

- ETS는 제도 설계(유상할당·cap·MSR 등)에 따라 자산성과 가격 기능이 결정됨
- 글로벌 ETS는 공급 제한(NDC 연계 cap)과 수요 확대(정책 연계)로 구조적 상승 압력
- 한국 ETS는 낮은 유상할당률(10% 이하),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 미약
- K-ETS의 시장성 제약은 KAU 기반 ETF·선물 부재와 산업 편중에서 기인
- 자산으로서 기능하려면 제도 신뢰·유동성·상품화가 필수 조건

3 ETS별 장단기 가격 전망

- 탄소 가격은 정책(Fit-for-55, CBAM 등) 변화에 따라 구조적 상승
- 2030년 글로벌 탄소가격 목표는 63~127달러/톤(World Bank)
- 유럽 ETS는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로 조정 중이나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 우세, MSR·CBAM이 가격 방어 역할
- 미국 CCA는 2030년까지 48% 감축 목표와 함께 상승 기대, ETF 기반 유입 확대
- 한국 KAU는 유동성 한계에도 불구하고, 4기 개편 후 구조적 반등 가능성 기대

4 탄소는 이제 투자자산이다: 투자 전략 분석

- 탄소배출권은 주식·채권·원자재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'정책 기반 자산'
- 유럽 EUA는 제도 신뢰도·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가장 자산화에 적합
- ETF·선물 등 금융상품 중심의 간접투자가 현실적인 투자 전략
- 수소·태양광·CCUS 등 전환 산업은 Long 전략, 철강·시멘트 등 고배출 산업은 Short 전략 유효
- 탄소집약도와 감축 유연성을 기준으로 산업별 투자 전략 구성 가능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